

Yullin Newsletter

SEP.

9

열린교회 신문 2022.9 vol.327



말씀솔루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흑암 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잘 달려왔던 인생길이 어둠 속에 접어들게 되면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는 마치 더듬이를 잃어버린 귀뚜라미와 같이 갈팡질팡하면서 인생 속에서 허덕거리게 됩니다. 또한 빛이 있으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어둠 속에서는 행합니다. 신앙의 눈이 바로 뜨여져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신앙의 눈이 감기고 나면 담대하게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곤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상하게 그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곤고한 것이 쇠사슬처럼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동여매게 됩니다. 밖에서 시작된 곤고함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그 곤고함과 씨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패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삶의 궁극적인 원인을 시편 107편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사람이나 궁핍이나 환경적인 여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부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한 것은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보여 주십니다. 큰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하시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능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죄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곤고함이 찾아와도 주님의 은혜는 그 고난을 능가합니다. 위기가 와도 쇠사슬에 매이기는커녕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자기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설교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선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구속하시고 모으신 하나님/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괴로운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인도하시는 하나님/신자의 두 가지 찬송 제목/인생이 곤고한 이유/고난으로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무지와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폭풍을 지나 소원의 항구로/우리 인생의 주관자 1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열린교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주의 집에 있는 행복



김남준 담임목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시 84:4-6)

본문해설

본문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망명을 떠났을 때 지어진 시로 추측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있어야 했습니다. 병이 나서 쇠약해지기까지 그 집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 그리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져다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행복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에 대해 선언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4절).

여기서 ‘살다’는 일시적인 체류나 의례적인 방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주님의 집이 자신이 거할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은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부여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시인은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얻는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음

첫째로,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5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집에서 거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

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그 힘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적·정신적·육체적 힘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현실을 이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음

둘째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5절). ‘시온’은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남쪽 끝에 있는 산지이고, 넓은 의미로는 예루살렘이 속한 전체 도시를 가리킵니다(사 1:8, 렘 8:19).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순경(順境)이 있으면 역경(逆境)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순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은, 순경 속에서는 자기를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역경 속에서는 고난을 이길 힘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은총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순경을 만나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자가 누구입니까? 시련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뵈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가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헤뜨게 내어주거나 세상이 마음을 짓밟고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조용히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으로 모든 시

련과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사는 여려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련을 이기게 하심

셋째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6절). ‘눈물 골짜기’는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그 길이 매우 험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그 험난한 길을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집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만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누리

시련 가운데에서도
곤비치 않는 힘을 얻으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 뵈올 수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험난한 계곡을 지날 때 샘물을 넉넉히 공급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샘물은 생명의 물을 뜻합니다. 거기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시 23:1-6).

또한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른 비’로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해 꼭 필요한 비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것이라는 시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샘으로 자신을 쓰러지지 않

게 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른 비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바였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샘을 터트려 눈물 골짜기를 지나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계곡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맺는말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시인은 이렇듯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물리적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기를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시기할 만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당신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혼과 육체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담임목사 동정

- 9.3 <어린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북 콘서트
- 9.4 새가족환영축제
- 9.6 구역강의 라이브방송
- 9.7 <어린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독후감 시상식
- 9.25 정기당회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온가족특별새벽기도회 취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답답함... 이 짓누르는 무거움은 무엇일까? 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 삶 속에서의 씨름들... 겉으로 내 일상은 ‘무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내 영혼에 비상등이 깜박이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원근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무거운 소식들, 묵직한 기도 제목들 앞에서 나는 영혼의 근무력증이라도 걸린 느낌이었다. 자기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어미가 자기에게 아우성치며 매달리는 자식들 앞에서 갖는 절망감이다. 나 그리고 모든 인간의 별거벗은 실존 앞에 서서 나는 망연자실 떨고 있었다. 두 발을 땅에 단단하게 딛고, 영혼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명량한 삶, 날마다 엄습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실존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과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 양립하는 삶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게 온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문 앞에서 있던 필자의 모습이었다.

아이와 함께-

새벽 4시, 아이를 깨워 최대한 말을 아끼며 가족이 예배당으로 향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차들이 길게 늘어져 있다. 차에서 내리니 여기저기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가족들이 잔걸음으로 교회를 향한다. 예배당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이색적인 풍경이다. 늘 아이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배드리니 특별한 게 당연하다. 예배당 안에서 간간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낮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찬양이 시작되자 금세 조용해진다.

온가족특별새벽기도회 후기

아빠 엄마와 기도했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이예현 장년5교구
jasmine.tea@kakao.com



몇 주 전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8월 15일부터 3일간 온가족 새벽기도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뉴스를 보며, 올해도 수련회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번 온가족 기도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3일 동안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고.

저희 집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 5시 10분에 시작하는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3시 30분에는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회를 일주일 앞둔 날부터 저는 매일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율동과 함께 찬양을 시작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찬송하였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기도’설교는 이미 주일에 시리즈로 선포되는 중이었고, 2차 기도빌드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온가족 특별새벽기도회는 말씀 적용을 위한 ‘맛보기’였다. 8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새벽 5시 10분에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바로 전날인 14일 주일에 담임목사님은 시편 42편을 본문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슴 짹짹 철에 갈증으로 죽어가는 수사슴을 묘사해주었다. 한 모금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기도회는 회개와 간구의 눈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말씀 요약(인간실존과 기도)-

첫날 누가복음 18장 초반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선 ‘과부’의 모습을 통해, 담임목사님은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였다. 끈질김과 열렬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둘째 날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되새기는 시

간이었다.

셋째 날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임을 보여주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삶을 살피서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막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사흘간 선포된 말씀을 요약하면, 인간 실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자신의 실존을 대면했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절망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거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게 되는데, 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기도이다.

에필로그-

그랬었구나... 내 영혼이 숨이 막힌 듯 답답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동안 담임목사님은 수많은 설교 시리즈를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다. 근래에 <염려에 관하여>, <삶의 명량함에 관하여> 등은 구역모임을 통해서도 깊이 나누어졌다. 이 말씀들은 교회 전체에 큰 파장을 안겨주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얹혀 있었다. 인간실존의 비참함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게을렀다. 그 짐을 짊어지고 선하신 주님 앞에 ‘간절함’과 ‘열렬함’으로 엎드리지 않았던 것! 간절한 기도 없이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함을 크게 배웠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아침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먼 거리에도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또 그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갑자기 시작된 폭우에 오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날씨를 주장해 주시도록, 구체적인 기도제목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새벽기도회 첫날, 우리 가족은 캄캄한 밤길을 달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위의 캄캄함과 달리 교회의 불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문 앞까지 나와 맞아 주시는 교역자님들의 인사는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였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뿌리 깊은 교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나의 기준으로 이끌어가고 했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며 이제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철저히 나의 체질을 바꾸시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기도회의 은혜 이후에도 아직 가정 안에 있는 어려

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어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이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온전히 다루어 주시도록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마지막 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가족은 5년 전에 참석했던 온가족 여름수련회를 생각했습니다. 그 때는 4살이었던 쌍둥이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매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엄마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나 9살이 된 아이들은 이번 새벽기도회 동안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기쁘게 일어나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빠 엄마와 함께했던 새벽기도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순간에 세상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고등부수련회 후기

휴날에도 수련회가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기를



수능 D-118. 나에게 있어 중요한 시험 8일 전. 7월 22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일정 가운데, 원래는 학원 일정으로 이 날(2일차)에만 수련회를 참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나는 3일차 저녁집회 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예정에 없던 셋째 날 수련회에 갈 수 있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첫째, 수련회 찬양 인도자로의 부르심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그날로부터 2주 전, 고등부 찬양팀원인 나를 찬양팀 선생님께서 내게 수련회 둘째 날 시작 찬양 인도자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다. 나는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그렇게 나는 이를 준비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준비 기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중한 시간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찬양도 여러 번 들어보며 이전까지는 몰랐던 그 가사와 멜로디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지금까지의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러곤 수련회 둘째 날, 당일이 왔다. 결론적으로 별 사고 없이 나는, 나의 인생 첫 찬양 인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둘째, 둘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 싱어로서 정말로 즐겁게 찬양했던 그 순간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찬양 시간이 되었을 때 전에도 싱어를 해 봤던 나는 어느 때처럼 찬양을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어느 때와는 다른 찬

양 시간이었다. 앞에서 높게 점프하며, 또 회중들 사이에서도 신나게 뛰어다니며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했던 그 순간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녔던 내게도 처음이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 어느 순간보다 열렬히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의 모습이 내게 너무 잘 보였으며, 그 장면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하시는구나’ 느끼게 해 주었던 것 같다. 아직까지도 내게 그 장면이 마음 깊이 남아 있다.

셋째, 둘째 날 앞에서 나와 무릎 꿇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진심을 다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친구들의 그 모습이 그 세 번째 이유가 된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라며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또 ‘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을 저렇게나 간절히 구하는 걸까?’라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던 모습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고, 내가 셋째 날 저녁집회에서도 다시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이 외에도, 처음으로 해 본 둘째 날 시작 찬양 인도와 이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나 윤치영 목사님의 유쾌하고 진심



이 담긴 말씀이나 선배들의 고3 생활 중 어려움이나 마음 지킴의 과정을 들을 수 있었던 고3 설명회, 삶의 분기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고3을 위한 응원의 시간 등의 모든 시간이 큰 은혜와 감사로 다가왔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둘째 날이 은혜로운 추억으로 남으니 셋째 날을 안 갈 수가 없었던 것 같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GBS 시간, 신나게 춤추고 뛰어다니며 오랜만에 한껏 즐길 수 있었던 로드웨이브와의 찬양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유쾌하고 진심이 담겼던 윤치영 목사님의 말씀 시간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던 저녁 기도회 시간까지. 이 셋째 날의 활동들 또한 너무 귀한 시간이 되어 준다.

내 성격이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련회 한 달 전쯤부터, 나는 공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크고 작은 스트레스로 평소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였다. 과연 시험 일주일 전에 수련회를 참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고, 수련회를 참가했을 때 나에게 다가올 이익과 내가 학원을 가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에 나에게 다가올 이익을 저울질하던 나였다. 둘째 날을 참석하기 직전까지의 나는 그 결론으로 후자, 즉 셋째 날 대신 학원을 가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둘째

인터뷰

이번 중등부수련회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중3 황지유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이 까마득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긴 시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는 막막한 진로에 관한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 길 또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

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금방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와도 되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시 은혜 이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주일예배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오래도록 간직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불꽃이 오래 타오를 수 있도록 내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쉽게 흔들리는 얇은 믿음이 더 강해져서 내 삶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 받는 것에 더 힘쓰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중3 박민주

수련회 전날 밤에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잠들었던 나이에, 이번 수련회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교회 행사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윤치영 목사님께서 3가지 알약을 알려주시며 그 말을 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날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가슴 깊게 다가와 눈물이 났습니다. 또 늦밤과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이 아닌 사탄이 보였을 거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민주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느냐며 사탄을 처절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수많은 죄악 속, 오직 주님만이 참된 주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계획한 시간 같았습니다. ☆

김근영 고등부 3학년



날 참석 후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한 번 그 저울을 들고 와 본다. 어제의 그 기억을 되새겨보다 보니 전자(수련회 참가)에 더 무게를 더하게 되었고, 나는 결론적으로 교회로 향한다. 진심으로 지금의 나는 그때의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 아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시험을 치르기 전에도 그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된 듯하고,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즐거워졌다. 나에게서는 그 이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점차 하나님을 찾는 변화된 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다. 이렇게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나의 청소년기 마지막 수련회가 마무리되었다.

내가 이제 곧 벌써 성인이 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고3은 고난의 끝이 아닌, 고난의 시작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고, 힘든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이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내 미래 언젠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내 모습이,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이 수련회 중에서의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이길 바란다.

그때까지도 이 수련회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사랑부성경학교 후기

영혼에 대한 관심 이어가기

신현희 장년2교구
yebica@naver.com



3년 만에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야겠다. 가고 싶다.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어 일일 봉사자 신청을 했다. 뭐부터 하지? 당연히 기도로 준비해야지!! 더불어 튼튼한 몸은 필수이겠다. 봉사자 단체톡방에 안내문 등 계시자료가 올라왔고 내 짝꿍인 지체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드디어 디데이.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도착하니 찬양을 하는 중이다. 다들 앉아서 찬양하는데 맨 앞줄에서 누군가 일어나더니 율동을 한다. 찬양이 나오자 바로 일어나 자신감 있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 그 용기가 놀라워 보였다. 동작도 잘 외울 뿐만 아니라 표현력도 좋았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싶었다. 문득 나를 돌아다본다. 많은 사람 속에서 기쁨에 겨워 일어나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먼저 의식될 것이다. 나 혼자 찬양할 때조차 췌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표현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알고 보니 열정적으로 율동하던 그 자매가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게 될 지체였다. 내 큰딸 또래였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란히 맨 앞줄에 앉았다. 나도 그 자매를 보고 용기를 내어 주변을 덜 의식하며 율동을 크게 따라 해 보았다. 어색함도 잠시, 이내 기쁨이 솟는다. 내 온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기분이랄까? 그러면서 사랑부 지체 한 사람 한 영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남의 시선에 덜 췌매여 보였다. 의식할 땐 하더라도 집중해야 할 것엔 담대해 보였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활동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서 간만에 또래 부모님들끼리

만나 답소를 나누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웬지 기뻐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게 되었다. 몸으로 마음으로 품고 지내는 내 소중한 자녀를 맡기고 그날 그들에게 자유시간이 되겠구나. 과연 얼마 만의 시간일까? 누군가에게 내 자녀를 케어해 주길 요청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다섯 자녀의 엄마인 나로서는 그 심정이 헤아려졌다. 그들에게 잠시라도 홀가분한 시간을 내어 드린다면 그런 시간이 종종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녀와 부대끼는 삶이 당연한 일상이지만 때로는 부담과 아픔으로 힘겹기도 했으리라. 그간 토요일에 하던 사랑부 토요교실도 한동안은 진행되지 못했으니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사랑부 지체와 부모들, 교사 모두의 기대를 받을 만했으리라.

나는 오늘 잠시 함께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해오신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고백이 나왔다. 그날 이후 담당 교사인 집사님과 그 자매에 대해 궁금한 걸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얼마 전엔 두 분의 식사 모임에 초대받아 만나고 왔다. 셋이 만나 저녁도 먹고 카페에서 진솔한 대화 시간도 가졌다. 알고 싶은 걸 묻고 답하며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저녁 무렵 불 켜진 교회의 모습이 너무 이뻐했다. 만남을 기억하려 계단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자는 소망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몽클해진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를 내게 알려 주시는 듯하다. 그래,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잠시 함께 보냈음에도 많은 걸 깨닫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고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다. ☆

특별작정기도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박보미 장년3교구
spring0670@gmail.com



안녕하세요? 장년 3교구 박보미입니다. 저는 열린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고 교리반, 기도학교를 통해 구원과 불신 영혼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교회에 부정적인 양가 부모님과 언니 부부에게 가족 구원에 관해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어찌하든지 제 힘으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기도하고, 다시 은혜 받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지쳐있었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특별작정기도가 시작되면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일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4기 암 투병 중인 형부의 기도를 시작으로 교회에 아프신 분들과 돌보는 가족분들을 위해 열렬함과 끈질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평일,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는 30분.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친정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듯이 서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서서 앉는 순간, 눈물이 쉴 틈 없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 말씀처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사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한 죄 된 옛본성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특별작정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더 불어 하루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꼭 받아보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2022 기도빌드업 2

특별작정기도

기간 ~ 10월 15일(토)

장소 교회 / 개인기도처

시간 매일 아침 5시~밤 12시,

30분 단위로 신청(중복선택가능)

기도제목 월별기도카드 활용

* 교회 홈페이지에서 특별작정기도 -> 신청하기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정기도를 신청해 주시면 교회의 특별기도제목을 매주 보내드립니다.

임직후기3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시무권사



이경옥
그 은혜에 순종합니다. 모세와 같지도 않고 다윗과 같지 않아도... 저를 존귀하다 하신 제 모습 이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의 다정함과 친절함을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혼자 아니고 함께 가겠습니다. 한 손은 주님 붙잡고 또 한 손은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 부르심에 겸손히 따라 가겠습니다.



이경자
교육 기간 동안 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함을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의 부족과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한 지혜 없음을 알게 되었고, 교회의 질서와 성도로서 헌신되지 못함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저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평온함도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신자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장경숙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한없는 은혜이듯이 교회를 섬기는 권사로 부르심도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지체들의 격려와 축복 속에서 임직을 받았고(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신임을 배반치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권사의 직무를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미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끌어서 권사의 직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힘의 근원이며 어려울 때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이 좋은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하고 누리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명랑하게 살 수 있도록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직분자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겠습니다.



최금례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임직교육이었기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더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주어진 교육일정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마음이 정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기에 임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었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먼저 예수사랑으로 본을 보이시고 헌신해주신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음을 알기에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교육의 일정이 마무리되던 5월의 아름다운 봄날처럼 영혼의 봄날이 되어 나 또한 본을 보이신 분들의 뒤를 이어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편재숙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불러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임직 교육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직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깊게 묵상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한순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질서를 통해 섬기며,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며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황성순
먼저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교회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조금이나마 교회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사랑으로 섬겨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9월 추천도서

윌리엄 퍼킨스의 직업 소명론

윌리엄 퍼킨스(박승민 역)/부흥과개혁사

“종교개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고대 시대부터 이어져 온 노동을 천시해 온 잘못된 직업관을 개혁하여, 현대 노동관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있다. 퍼킨스의 이 작품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제시된 소명론의 고전으로 일컬어진다.”



번역자가 서문에서 밝히듯이 ‘소명론’을 다룬 저술은 학문적 기반에 소홀하는 경우가 많으나 퍼킨스의 직업 소명론으로 본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퍼킨스는 1500년대 영국에 크게 영향을 끼친 성직자요 신학자다.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청교도 운동을 이끈 유명한 지도자다. 칼빈의 지지자이며 드베즈를 영국에 소개한 인물이다. 퍼킨스는 수많은 저술을 통해 광범위한 신학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신학뿐 아니라 각종 학문 분야에서도 개혁주의 관점에서 학문 체계를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교보문고)

포토에세이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새가족

장년

- 한운택(82) 유상현(92)
- 유리빛나(91) 최문정(90)
- 백서윤(76) 박지웅(90)
- 원세연(85) 이해인(86)
- 김선호(57)
- 최미숙(76)
- 김병민(86)
- 신지혜(84)

청년

- 김지연(99)
- 정이나(00)
- 최서진(02)
- 백성현(03)
- 손진곤(88)
- 송영찬(99)
- 유현(00)
- 윤채빈(03)

9월 주요사역

- 3일(토) 어린이 복콘서트 “예감”
- 4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 하반기 영아부 예비 학부모 설명회
- 17일(토) ~ 10월 1일(토) 2기 세빛교실
- 17일(토) ~ 11월 26일(토) 50기 토요 교리반
- 25일(주일) 정기당회
- 25일(주일) ~ 11월 20일(주일) 24기 등불학교

경주자(교역자칼럼)2

기도로 우리 삶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

최성기 장년5교구 담당 목사
lamuda@hanmail.net



신앙의 출발선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복된 특권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을 누리도록 초특급 하이패스 ‘기도’를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던 열세 살 수련회에서 저는 첫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오후 프로그램 외에는 모두 말씀 집회로만 채워진 그 수련회에서 ‘복음’이 제 심령에 선포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집회 시간에 열세 살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저를 데려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저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생애 처음 저는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수련회 때 배운 ‘7분 묵상 기도법’으로 날마다 ‘봄날의 햇살’ 같은 기쁨의 교제를 그분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그분을 향한 감사로 열었고, 하루를 마칠 때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깊이 사귀길 구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밀월 같은 그 기쁨도 잠시, 어느새 좋은 대학을 향한 일념으로 공부에 쪼든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변해 버린 저는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 정도로 하나님을 제 삶에서 밀쳐놓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스무 살, 고향을 떠나 대학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게 된 저는 ‘서울에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데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향수와 방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저를 선배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학교 앞 교회로 데려가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본당 앞 장의자에 앉아 강대 뒤 십자가의 은은한 조명 빛을 받으며 그 선배는 수줍어하며 그러나 마음의 확신을 담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스무 살의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도록, 그분과 사귀며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라고 권하시며 “이 예배당이 네 기도의 집이 되길 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배 형의 조언으로 시작된 기도의 삶으로의 초대가 제 대학시절 가장 복된 기억이 되었습니다. 스물 네 시간 늘 열려있는 대학가 그 교회는, 술 취한 이들의 고성방가가 가까이에서 항상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믿음의 친구들에게는 복된 ‘벤엘(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청년이 늦은 밤까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잠잠히 그분을 향해 귀 기울이며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기도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바다 위 부표 마냥 늘 파도가 치면 요동하기에 바빴던 제가 그 시절 영혼의 닻과 같이 주님께 붙들려지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방황하고 넘어졌을는지 생각해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한 기도로 제 삶을 빚어 오셨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막막해하며 염려하던 저에게 금요일 밤마다 마음을 정하여 기도회로 나아가 꿀송이 같은 말씀에 취하게 하시고, 말씀 한 시간, 기도 한 시간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일 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늦게 장교로 복무하며 만난 두 분의 선배와 군대 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세 사람이 함께 자모실에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0분을 기도하였나 시계를 보니 세 시간이 지나 있었던, 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그 기도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맘에 찌든 군복차림으로 한여름 군대교회 자모실에 모여 초라한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세 형제의 처연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중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또 나머지 둘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목사)로 빚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기도로 우리 삶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 우리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곰곰이 생각

빛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사람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빛은 어두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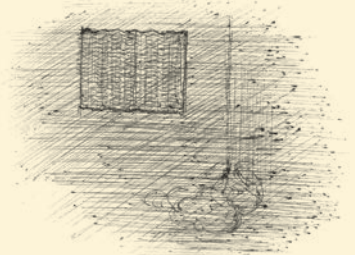
빛은 어두움이 비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추인 것이 보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죄가 보입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감추어도 안 보이고,
보려 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은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죄가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나의 어두움’을 없애려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안 보이던 ‘세상과 나의 어두움’을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독후감

<교사 리바이벌>

정동훈

외부 기고문으로, 사진은 담임목사님 저서로 채워진 필자의 책꽂이를 찍은 것입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며 저의 무릎을 꿇게 했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이고 또 하나의 책은 <구령의 열정>입니다. 두 권의 책이 저를 무릎 꿇게 한 건, 이 책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던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권의 책과 함께 저의 무릎을 꿇게 한 또 하나의 책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교사 리바이벌>입니다.

저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크게 누리고 있을 때, 그야말로 초신자 때 아동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맡은 사명은 자전거를 타고 예배드리러 오는 아이들의 자전거를 정리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정리하는 안내 교사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심방하고 공과를 인도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 다음 해에 1학년 2학년을 책임지고 섬기는 정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영혼들을 섬김 경험이 없어서 그야말로 막연했습니다. 교사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심방은 어떻게 해야 하고, 예배 후 공과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아이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등 수많은 질문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배가 없는 날 예배당에 홀로 와서 참 많이 울었고 등록 아동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인 <교사 리바이벌>을 만났습니다. 찢찢 갈라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다음으로 가장 곁에 두고 읽었던 책이어서 제게는 “교사 바이블”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심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책을 덮고 무릎 꿇

고 기도드렸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지침도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은 아동부 교사가 아닌 청장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 영혼들은 달라졌지만, 섬김의 자세와 원리는 동일하기에, 그 자세와 원리를 풍성히 제공하는 <교사 리바이벌>을 요 최근에도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난 후 그리고 사명의 초심이 약해질 때마다 <교사 리바이벌>을 펼치고 페이지를 넘깁니다. <교사 리바이벌>은 교사 직분을 받은 이들과의 책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신자와 특히, 직분을 받은 이들이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 교회 현실이 어두워 보이지만,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와 교회에게 환경을 초월한 부흥의 새날을 허락하심을 믿고, <교사 리바이벌>은 그 부흥의 새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사와 교회에게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설교와 책으로 신앙의 울림을 언제나 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과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열린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15년 만에 열린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내 이해선 성도가 돌아온 것이지요. 아내는 2007년 결혼하여 열린교회를 떠나기 전에 청년부 소속이면서 4년 6개월 간 사무간사를 맡아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방배동 시절부터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는 저를 만난 후 교회를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당시 저 역시 섬기던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기에 신혼의 아내에게 제가 다니던 교회로 가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아내는 제 말에 따라주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열린교회로 돌아올 일은 없고 아내 역시 새로운 교회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저, 세 명의 아이들은 올 초 열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영적 소속감’은 정말 강력했던 것이지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자 부부로 일하고 있을 때조차 아내는 열린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김남준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 교회를 옮겨 다니며 출석했던 저와는 달리 아내의 분명한 ‘영적 소속감’은 매번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1989년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회심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장로님과 권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따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겨울수련회를 경기도 광주의 기도원으로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 바지의 허리띠가 끊어지도록 부르짖던 중 놀라운 감동과 벅찬 은혜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은 일어서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졸업을 하면서 공장 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게 되면서 서서히 선교사로 자원했던 순간은 잊혀져 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10년 넘게 고등부 교사로 일하며 청년부 회장도 맡았지만, 선교사로 헌신했던 중학생 시절의 기도는 과거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이 밝았습니다.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신년특별부흥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별부흥회의 설교 주제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십시오’였습니다. 아직 후반전은커녕 전반전도 이제 갓 시작한 32살의 청년이었던 제게 그 설교는 알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식하며 부흥회 말씀을 묵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부 부장님께서 갑자기 ‘중동선교회’에서 총무선교사를 뽑고 있는데 지원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끝나고 새벽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중동선교회에 지원서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먼저 지원한 수십 명이 있음에도 저에게 말아보라는 과격적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6살 어린 중학생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16년이 흐른 후 신실하신 그분의 경륜 안에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저는 중동 이슬람권 중심으로 100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던 중동선교회의 본부 총무선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영적 소속감’이라는 부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교회 사역 중에 만나 결혼한 아내 역시 터키 선교사 지망생이었는데, 열린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점차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의 중동선교회 본부 사역을 마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한 후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온 15년의 결혼생활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린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 꼭 열린교회여야 하는가? 하면서 의견 충돌을 빚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건고한 ‘영적 소속감’이 어느 정도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저에게 마침내 아내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녁을 잘 먹고 난 참이었는데, 이런저런 대화 끝에 아내가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편인 당신이 먼저 천국 가게 될 터이니 그 때 난 반드시 열린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이지요. 저는 진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열린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함께 기도해보자고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깊은 고민에 빠진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인생 얼마나 길다고 하나뿐인 아내의 소원 하나, 그것도 교회 돌아가자는 것인데 들어주지 못 할 일이 무언가, 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으로 성장한 세 자녀에게도 엄마 아빠와 함께 열린교회로 옮기는 일을 기도와 함께 준비하자고 대화를 통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행복한 ‘영적 소속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교회학교에서 즐겁게 열린교회 학생으로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성장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함께 공부 중인 6교구 성장반 남성들이 모두 저와 비슷하게 아내의 손에 이끌려 열린교회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왕,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심지어 당진에서까지 아내들의 손에 이끌려온 남성들이 둘러앉아 본의 아니게 ‘아내 자랑’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흥미롭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영적 소속감’을 분명하게 갖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섬세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린교회의 성도로, 열린교회를 이루는 한 가정으로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힘을 다해 신앙생활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 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파송선교사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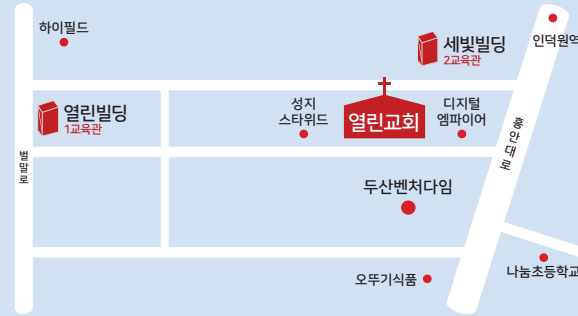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안양 8, 8-1 군포 540, 8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